국토교통부		与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 판뉴딜	
		배포일시	2021. 1. 12.(화) / 총 9매(본문4, 참고5)		
담당 부서	대광위 광역시설 운영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우제, 서기관 홍철, 주무관 최규열 • ☎ (044) 201-5100, 5102		
보 도 일 시		2021년 1월 13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12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성능·차체·편의성·안전…트램 국내 표준규격 수립 - 사업계획 지원, 차량 제작·유지보수…안전성·경제성 향상 기대 -

- □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최기주)는 지자체에서 트램 사업의 계획 수립 및 트램 차량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'트램 차량 표준규격'(이하 표준규격)을 마련하였다.
 - 표준규격은 성능, 차체, 이용자 편의성, 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해 총 35개 세부항목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.
- □ 표준규격은 지자체의 트램 사업지원 등을 위해 마련하였다.
 - **트램**은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**교통 수단**으로 유럽, 북미 등 주요 도시에서 **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**되고 있다.
 - **우리나라**의 경우 2016년부터 도시철도법 등 트램 도입에 필요한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,
 - 이르면 오는 2023년부터 부산 오륙도선을 시작으로 서울 위례선, 대전2호선 등이 순차적으로 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.
- □ 다만, 대다수 지자체는 국내 운행사례가 없는 점, 해외 제작사의 다양한 트램 차량 종류 등으로 인해 차량 선택 및 노선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.

- 이와 함께, 지역별로 다양한 차량 형식이 도입될 경우 유지보수와
 운영의 효율성이 낮아지고, 지역별 소량 맞춤형 발주에 따른 차량
 구매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우려도 있었다.
- 이러한 문제는 **이번에 마련된 표준규격**을 통해 **상당부분 해소**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□ 표준규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(차량 종류) 트램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유가선 트램과 국내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무가선 트램 등 2종류로 구분*하였다.
 - * 유가선 : 선로를 따라 설치된 전기선으로부터 차량에 전력을 공급 / 전기선 설치 무가선 : 배터리(저장) 또는 연료전지(변환·생산)로부터 전력을 공급 / 전기선 설치 ×
 - 유가선과 무가선 차량의 성능기준은 대부분 동일하나, 무가선은 에너지 저장방식(ESS, Energy Storage System) 등에 따라 전기성능을 별도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.
 - (성능) 차량의 성능은 최고속도를 시속 70km로, 입력전압은 도심지 공급에 적합한 750V로, 가감속 수준 등 주요 성능은 해외에서 주로 운행되는 트램 차량과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.
 - (무가선 특별사양) 무가선 전력공급 방식은 현재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 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배터리(battery), 슈퍼 커패시터 (super-capacitor, 초고용량 축전기), 수소 연료전지 등 3가지를 제시하였다.
 - 각 무가선 방식별로 기존 도시철도에 비해 짧은 거리*를 운행하는 트램의 노선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충전용량(예시 : 배터리의 경우 40㎞ 이상 운행)과 충전시간을 설정**하였다.
 - * 기존 도시철도 노선길이 : 20~60km / 트램 노선길이 : 5~35km
 - ** 배리: 용량 200kwh 이상, 충전시간 급속 2h, 왼속 30min / 슈퍼캡: 용량 8kwh 이상, 충전시간 20s / 수소 연료전지: 수소탱크 용량 40kg 이상

- (차체) 차체 규격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운행되는 5모듈 1편성(35m)을 기본으로 하고, 국내 도심지 도로의 차로 폭(2.75m~)과 육교 등 도로시설의 높이(4.5m~) 등을 고려하여 도로주행에 적합하도록 차량 폭은 2.65m로, 차량 높이는 3.6m로 하였다.
- (이용자 편의성) 냉·난방 성능(8~10kW)과 조명 밝기(250lx) 등은 차체 규격에 적합한 수준으로 하고, 바닥 높이는 교통약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저상버스와 동일한 350㎜로 설정하였다.
- (안전) 마지막으로, 안전을 고려하여 충돌강도와 차량 무게 등은 유럽 규격(European Norm), 도시철도건설규칙 등 국내외 기준을 준용하여 제시하였다.
- □ 표준규격에서 제시된 **주요 수치**는 지자체 및 국내 제작사 등의 의견과 **국내외 기술수준**, 해외에서 상용 중인 트램의 성능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.
 - 또한, 이는 권고의 성격으로 트램을 계획 또는 도입을 검토하는
 지자체는 표준규격을 우선 참고하되,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춰 일부 항목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.
- □ 한편, 표준규격은 무가선 저상트램 등 기술개발('09~'22), 트램 도입 근거 마련 등 법령정비('16~'18), 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제정 ('20.8) 등 트램 활성화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.
 - **올해**도 트램 사업의 **투자평가체계 개선** 등의 제도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- 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**이윤상 광역교통운영국장**은 "트램이 보편화 되어 있는 **유럽, 북미 등과 비교**할 때 상대적으로 **출발이 늦어진 측면**이 있다"면서,

"이번에 마련된 표준규격을 통해 지자체의 트램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, 차량 제작사 입장에서 장기적 부품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게되는 등 국내 트램의 활성화와 트램 산업의 성장발전에 도움이되기를 바란다"고 덧붙였다.

참고1 트램 차량 표준규격

□ 주요 항목

На	주요항목		차량 유형			
분야			유가선 트램	무가선 트램	비고	
성	차량 성능	최고속도	0	0		
		가속도	0	0		
		감속도	0	0	_	
		저크	0	0		
	전기적 성능	입력 전압	0	0		
		판토그래프	0	0		
		판토작동범위	0	0		
		모터추진성능	0	0		
		ESS 충전시간	_	0		
		ESS 성능 및 용량	_	0	무가선	
		ESS 냉각방식	_	0	특별사양	
		ESS 충전방식	_	0		
	차체 규격	총길이	0	0		
차체		차폭	0	0		
		총높이	0	0		
		축거	0	0	_	
		궤간	0	0		
		최소회전반경	0	0		
	안락성 -	내부소음	0	0		
		외부소음	0	0		
이용자 편의성 ⁻		난방	0	0		
		냉방	0	0	_	
		조명	0	0		
		좌석 재질	0	0		
	수송용량	승차정원	0	0		
		최대 승차인원	0	0	_	
	접근성	바닥높이	0	0		
		내부 높이	0	0		
		출입문 개폐방식	0	0		
		면당 출입문수	0	0	_	
		개폐 방식	0	0		
		출입문 폭	0	0		
		출입문 높이	0	0		
안전	충돌강도	충돌강도	0	0	_	
	차량무게	최대 축중	0	0	_	

□ 세부사양: 가선

1. 차량 성능

최고속도: 70km/h

가속도

- 평균(0∼40 kn/h) : 1.2 m/s²

감속도(하중조건 AW0∼AW2)

- 상용 : 1.2 m/s²

- 비상 : 2.7 m/s²

저크: 1.0 m/s³

2. 전기적 성능

입력 전압: 750V DC (550V~900V)

판토그래프: 1개

판토작동범위: 3.60~6.50m

모터추진성능 : 360kw 이상 (750V)

3. 차체 규격

총길이 : 35.0m 이하 (5모듈 1편성 기준)

차폭: 2.65m (static template)

총높이 : 3.60m (판토 하강)

* 지하시도나 보도육교가 없는 경우 높이 변경 가능

축거: 1.9m (+/-10%)

궤간: 1,435 mm

최소회전반경: 25m

4. 안락성

내부소음

- 75dB(60km/h), 70dB(개활지 정차)

외부소음

- 81dB(60km/h), 68dB(차량 정차)

* 주거지역 경유 등 노선별 운행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기능

난방 성능 : 8 kw

냉방 성능 : 10 kw

조명 : 250 lx (1.30m)

좌석 재질 : 불연재료 사용

5. 수송용량

승차 정원 : 120인 (2.5인/m²)

최대허용 승차인원 : 280인 (6인/m²)

6. 접근성

바닥 높이(저상): 350 mm (고상 875mm)

내부 천장 높이 : 2.1 m

출입문 개폐방식 : 외부 회전

출입문수/면 : 측면 당 양문 4 이상

출입문 개폐 : 반자동

출입문 폭 : 1.5 m(양문)

출입문 높이 : 2.0m

7. 충돌강도

충돌 강도 : 압축 하중 200kN

8. 차량무게

공차중량: 38.5t / 최대중량: 56.7t

축중: 13.5t 이하

* 트램 무게 및 축중이 기존 도로교량의 설계하중 초과 시 가벼운 차량으로 별도 제작 가능

□ 세부사양 : 무가선









배터리(예시)

슈퍼캡(예시)

수소 배터리 셀(예시)

기타(예시)

1. 차량 성능

가선과 동일

2. 전기적 성능

입력 전압: 750V DC(350V~900V), 1,500A

판토그래프 : 1개 (제외 가능) 판토작동범위 : 3.60~6.50m

모터추진성능 : 360kw 이상 (750V)

1) 배터리 방식

- 충전시간 : 2h(완속), 30min(급속)

- 용량 : 200 kwh 이상

- 충전방식 : 판토 또는 지상접촉

- 취부높이 : 3.60~6.50m(판토). 0~10mm(지상)

- 냉각방식 : 공냉 또는 공냉+수냉

2) 슈퍼캡 방식

- 충전시간: 20s

- 용량 : 8 kwh 이상

- 충전방식 : 판토 또는 지상접촉

- 취부높이 : 3.60~6.50m(판토), 0~10mm(지상)

- 냉각방식 : 공냉+수냉 또는 수냉

3) 수소 방식

- 수소탱크 용량 : 40kg 이상

- 충전압력 : 700 bar

- 취부 높이 : 1.00~2.00m

- 냉각방식 : 공냉+수냉 또는 수냉

3. 차체 규격

가선과 동일

4. 안락성

가선과 동일

5. 수송용량

가선과 동일

6. 접근성

가선과 동일

7. 충돌강도

가선과 동일

8. 차량무게

공차중량: 45t / 최대중량: 63.2t

축중: 13.5t 이하

* 트램 무게 및 축중이 기존 도로교량의 설계하중 초과 시 가벼운 차량으로 별도 제작 가능

참고2 무가선 저상트램 표준규격 차량 조감도(예시)







※ 본 조감도는 예시 자료임 / 무가선 저상 트램(국가R&D) 조감도 활용

참고3 무가선 방식별 비교

□ 배터리(battery) 방식

- (개요) 차량기지 등에서 배터리를 충전하고,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
 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운행
- (특징) 충전시설 설치(차량기지) 및 충전전력 공급(전기선)이 용이
 - 충전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(완속 2h, 급속 30min), 현재 기술여건 상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가 40km 수준 (국가R&D, 200kwh 용량 기준)
- (사례) 국내 무가선 저상트램(국가R&D, 철기연 주관) / 프랑스 니스 (alstom), 터키 콘나(skoda), 독일 뮌헨(stadler) 등은 가선·배터리 혼용

□ 슈퍼캡(supercapacitor) 방식

- (개요) 각 정류장에서 짧은 시간(20s) 동안 다음 정류장(0.5km 내외) 까지 운행 가능한 만큼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행
- (특징) 적정 정류장 간격 확보 시 노선길이와 무관하게 운행 가능
 - 도심지 내 각 정류장에 전기 공급시설(변전소, 충전시설 등) 필요
- (사례) 스페인 세비야(CAF)·사라고사(CAF), 대만 카오슝(CAF)

□ 수소 연료전지 방식(수소 연료전지 - ESS hybrid)

- (개요) 차량기지 등에서 수소를 충전하고, 수소 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·운행하는 방식
- (특징) 등·감속 구간에서의 잉여전력은 배터리에 저장하여 가동· 가속 구간 등에서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도 활용 가능
 - 수소 저장 및 운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, 수소 트램은 기술개발 단계로 국내외 운행사례가 없음